

# 2026년 5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광주문화방송(주)

## 1. 회의 개최

연번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 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26-5	5.21	회의실	9/12	3	1	13	○	-	-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박양우·박종수·설제학·양지현·유한별·이경주·장은백·정인영·정희(9명)

###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김낙곤(사장), 원승연(경영전략본부장), 김철원(방송본부장)

- 경영진 외 : -황형철(경영심의팀 부장)

## 2. 심의 결과 및 조치현황

###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 요구

방송 편성	채널 구성·운영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 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0	0	7	2	0	1	10	0	10

### 나. 사업자 반영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합계
건수	10	0	0	10

다. 의견제시(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 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5.18 등 인권 문제 계속 관심 바람	<뉴스데스크> 들불 열사 합동 추모식·들불상 시상식 열려(5.23), 다큐멘터리 <항쟁과 헌법>(5.28) 등 방송 조치	'26.5
"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방송 바람	후보자 연설 방송(5.28, 6.2),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후보자 토론회>(5.26), 등 방송 조치	"
"	교육 문제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보도 바람	<뉴스데스크> 시정약용과 수업을···시공간 초월 미래교실(5.22), '전남광주 통합교육청' 출범 초읽기···'융합과제'(6.5), <뉴스투데이> 교육부 장관, 김대중 당선자와 교육행정 통합 논의(6.4), '질문이 실력이다' 학교 교실 변화의 바람(6.9) 등 방송 조치	"
"	5.18의 가치를 계승하는 다양한 조명 해주길 바람	<뉴스데스크> "내년 개헌 절호의 기회···5.18 명기해야"(6.5), <뉴스투데이> 역사상 가장 긴 쿠데타···그보다 더 긴 항쟁(5.28), <광주MBC보다> 5월을 기억하는 방법(5.25) 등 방송 조치	"
"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보도 바람	<뉴스데스크> 6대1 최고 경쟁률 "돌아오는 구례로"(5.31) 등 방송 조치	"
"	기자로서의 소명 의식을 제고해주길 바람	보도 책임자와 담당 팀장 의견 전달 및 상시 기자 윤리교육 시행 조치	"
"	<시사용광로> 소풍, 수학여행 없어진 학교 편, 학생의 직접적인 목소리 부족 아쉬움	보도 책임자와 담당 기자 의견 전달 조치	"
교양	<빛나는 나의 도시> 법적인 문제 다양하게 다뤄 시청자의 궁금함 해소 바람	<빛나는 나의 도시> 매주 수요일 '잘 먹고 잘사는 법(法) 고정 코너 방송	"
"	우리 지역의 다양한 명소 이야기를 찾아 방송 바람	<빛나는 나의 도시> '참 평화롭구례'(5.28) 등 방송 조치	"
기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 방송을 위해 관련 법규 준수 바람	보도 책임자와 선거 방송 담당 팀장 의견 전달 조치	"
합계		10건	

라. 시청자 권익 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 일자	비고
해당 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 사항 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시청자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 여부 ※ 활용 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실적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필수	○
토의안건 사전공지 및 상시적 의견 개선 창구 운영 중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에 공개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상시의견수렴방법	내용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메일	해당 사항 없음

##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보도	5.18 등 인권 문제 계속 관심 바람	5.18 문제에 있어 지역 언론사 중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겠음	○		
"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방송 바람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높은 관심에 맞춰 통합교육감 관련 정책 보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음	○		
"	교육 문제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보도 바람(양지현)	전남광주통합교육감의 정책과 비전, 역할 등을 적극적으로 보도해나가겠음	○		
"	5.18의 가치를 계승하는 다양한 조명 해주길 바람	5.18 관련 보도는 가장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고 5.18의 가치를 조명하고 후대 세대에게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음	○		
"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보도 바람	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져다줄 통합과 시너지 효과가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도록 의제화시켜나가겠음	○		
"	기자로서의 소명 의식을 제고해주길 바람	기자들에게 심층보도, 탐사보도 요구 끊임없이 해가겠음	○		
"	<시사용광로> 소풍, 수학여행 없어진 학교 편, 학생의 직접적인 목소리 부족 아쉬움	토론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담길 수 있도록 향후 노력하겠음	○		
교양	<빛나는 나의 도시> 법적인 문제 다양하게 다뤄 시청자의 궁금함 해소 바람	시청자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법률문제들을 알기 쉽게 소개해나가겠음	○		
"	우리 지역의 다양한 명소 이야기를 찾아 방송 바람	지역의 명소와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기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 방송을 위해 관련 법규 준수 바람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보도로 가장 좋은 일꾼들이 뽑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6년 5월)

일시	2026년 5월 21일(목) 17시	장소	회의실
참석자	위원회	박양우·박종수·설제학·양지현·유한별·이경주·장은백·정인영·정희(9명)	
	회사	김낙곤 사장, 원승연 경영전략본부장, 김철원 방송본부장(3명)	

## ■ 회의 내용

- 박양우 위원장 : -반갑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이번 시청자위원회는 임기 마지막 회의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위원님,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권 향상을 위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주신 광주MBC에 감사드린다. 사장님 말씀을 듣고 회의를 시작하겠다.
- 김낙곤 사장 : -한 달 만에 다시 뵙게 돼 반갑다. 위원회 임기가 끝난다고 생각하니 1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것 같다. 전 구성원을 대표해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제시해주신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기대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넓은 양해를 구한다. 조직개편을 통해 보도와 편성제작을 하나의 본부로 통합했다. 또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본부를 만드는 등 광주MBC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
- 박양우 위원장 : -그럼 업무보고부터 해달라.
- 김철원 방송본부장 : -먼저 보도부문부터 보고드리겠다. 5.18 46주년 다큐멘터리 <항쟁과 헌법>을 28일에 방송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전두환 회고록의 시작과 종말 그 10년간의 기록을 다룬다. 헌법전문에 5.18과 부마를 담은 개헌이 국힘의힘 반대로 무산된 내용이 포함되며,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등과 협업해 제작하게 된다. '5.18 개헌 촉구' 연속보도도 진행했다. 반대 당론을 고수하는 국민의힘 동참을 촉구하고, 국민의힘 부산, 경남 국회의원 30명을 전주조사 취재했으며, 총 6회 보도했다. 이 내용은 뉴스와 5.18 다큐 등에 반영할 것이다. 6.3지방선거도 준비하고 있다. 통합시장 등 지방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한다. 초대 특별시장 후보 네 명과 우리 동네 일꾼을 살펴보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 여고생 살해범 관련하여 단독으로 연속보도 했는데 발생 기사부터 모두 11차례다. 범행 이틀 전 스토킹 신고나 순찰차 거점 구역 등을 단독 발굴했다. 경찰 초기 대응이나 언론통제 등과 관련하여 지속 보도할 예정이다. 주요 계획으로는 <선택 2026 : 우리 동네 일꾼은> 연속 기획보도를 한다. 통합시장, 교육감을 비롯해 방송 권역 13개 지역구 후보자 전원을 보도한다. 단,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광주 서구, 남구는 제외한다. 5.18 46주년 다큐 <항쟁과 헌법>을 28일 방송하며, 행정통합 해외 기획 취재도 준비 중이다. 독일과 프랑스, 뉴질랜드의 행정통합 사례를 취재해 10월에 방송할 계획이다. 다음은 편성제작부문이다. <빛나는 나의 도시>에서는 5월 한달 동안 서구 4호 달빛어린이병원 현장 연결, 지방선거 홍보 및 투표 참여 독려, 조선행학교 장미축제 현장 모두의 5.18 전야제, 행사, 기념식 등을 방송했다. 빛나는 초대석에는 오월어머니 김길자 씨가 출연했다. <시사용광로>에서는 소풍 없는 학교, 이대로 괜찮은가요?, 5.18 성폭력 피해자 모임, 5.18 열매를 내용으로 방송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가 나주시장, 동구청장, 보성군수, 교육감, 영광군수 편 등을 방송했거나 준비하고 있다. <테마기행 길> 구례 편은 28일에 방송한다. 라디오 <시사특라이브>에서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대표, 국회의장 후보 박지원, 담양군수 후보 정철원, 박종원, 송영길 후보 등을 인터뷰 했다.
- 박양우 위원장 : -업무보고에 관해 질문사항이 있으면 해달라. 없으면 위원회 의견을 듣겠다. 저부터 의견을 드리고자 한다. 올해는 5.18민주화운동 47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그동안 5.18민주화운동을 폄하하던 정권이 가고 이를 헌법전문에 포함하려는 새로운 정부를 맞이한 뜻깊은 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내란을 옹호했던 제1 야당의 반대로 헌법 개정은 결국 무산되었다. 이러한 때에 5월 14일 방영된 <시사용광로> '5.18 성폭력 증언 진실을 넘어 치유로' 프로그램을 보는 제 마음은 내내 착잡하기 그지없었다. 아울러 이 프로그램을 보며 국가 그리고 정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를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다. 성

폭력은 한국 사회에서 금기어나 마찬가지다. 특히 성폭력 피해나 피해자는 마치 주홍 글씨를 평생 안고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는 매우 몹쓸 악행이다. 우리는 5.18민주화운동을 말하며 민주주의를 지킨 영령들과 부상자 그리고 참여한 시민들의 공을 찬양한다. 지당한 일이다. 그러나 그 무대 뒤에서 차마 말하지 못하고 가슴앓이하며 사는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정부도 시민들도 무관심하거나 몰랐다. 모두 공범인 셈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5.18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하며 더 이상 피해자들이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피해 증언자, 곧 폭력을 증언하는 시민의 권리를 행사한 용기를 보여준 것에 대해 이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또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켜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인정과 사과, 나아가 온전한 배보상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주제들을 충실하게 다루었다. 앞으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소송을 통해서도 실질적인 배보상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나아가 금전적인 배보상 뿐만 아니라 피해자분들이 부당한 폭력을 당한 이웃 주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 그리고 가까이 사는 이웃들이 다독이며 평상의 이웃으로 함께 사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국가가 시민을 상대로 부당한 폭력, 특히 성폭력을 다시는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단호하고도 엄중한 제도적 장치도 더 강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믿는다. 군인이나 검찰, 경찰 등 권력을 가진 공무원들이 폭력을 행했을 경우 그 가해자에 대해 돌이키기 어려운 처벌을 내리는 것은 물론, 국가가 온전한 피해 보상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누구도 다시는 그런 불법 부당한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무대 뒤의 인권 문제들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른 방송사가 할 수 없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한다.

- 박종수 위원 : -5월 13일 <빛나는 나의 도시> ‘잘 먹고 잘사는 법’ 코너송이 나오지 않아 코너를 이어가는 연결이 매끄럽지 못했다. 진행자가 “오늘은 타이틀 없이 들어갔습니다. 바로 모셔볼게요” 하고 인사로 넘어가며 진행을 이어갔다는 점은 칭찬할 만했다. 이날에는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점유이탈물횡령죄’ ‘학부모 민원’ 그리고 ‘상속제도 개정’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 길에서 주운 지갑을 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 하나요?라는 시청자의 질문에 관해, 불법으로 취득하겠다 의사 여부가 관건이고, 기간의 문제는 아니고 바로 돌려주지 못한다 상당한 이유가 있었나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례를 들어 이해가 쉬웠다. 그리고, 습득하면 본인이 바로 돌려주지 못할 상황이라면 바로 신고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학부모 민원’의 허용과 법적 문제에 관한 질문은, 최근 이슈 중 하나를 담은 질문으로 “학부모는 교육참여권이 인정된다. 자녀의 교육 환경, 교사의 생활지도 방식, 학교 운영 등에 관해서 교육청이나 학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학부모 민원 권한은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본적 틀을 설명하고 예시를 들어줬다. 유익한 정보였다. 이 코너는 우리가 일상에서 누구라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관해 알기 쉽게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는 장점이 있다. 앞으로도 법적 문제를 알기 쉽고 다양하게 다뤄 시청자의 궁금을 해소해주면 좋을 것 같다.
- 설재학 위원 : -5월 7일 방송된 <시사용광로>는 최근 학교 현장에서 소풍,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이 줄어드는 현실과 그 원인을 주제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다수의 시청자는 아련한 기억 속에 소풍, 수학여행의 추억 한두 가지 정도는 자리 잡고 계실 거다.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외 활동 등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점도 많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체험학습 등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사들에게 차량의 타이어 마모 정도까지 확인하라는 내용을 보고, 이것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생각보다는 결과론적으로 책임을 묻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들어 씁쓸한 마음도 들었다.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자녀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학교에 자녀 교육을 맡기는 입장에서는 학교와 선생님을 믿고 맡기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부모와 학교 사이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또한 교사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도 전적으로 동감한다. 프로그램을 보면서 다소 아쉬웠던 점은, 이러한 외부 활동의 직접적인 체험 대상자인 학생들과 선생님께서 직접 출연하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들려주셨으면 좋았겠다. 이제 교육의 방향을 결정할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있다.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방송하여 시청자가 교육에 관한 관심을 넓혀주길 바란다.
- 양지현 위원 : -<시사용광로>에서는 5월 가정의 달과 야외활동 성수기를 맞아 최근 교육 현장에서 화두가

되는 현장 체험학습 위축 문제를 매우 시의적절하게 다루었다. 단순히 “소풍이 줄어들어 아쉽다”라는 감정적 접근에 그치지 않고, 그 이면에 자리 잡은 교사의 법적·행정적 책임 부담, 제도적 사각지대, 그리고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 및 학습권 침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입체적으로 짚어낸 완성도 높은 토론이었다. 선생님에게는 직업이면서 일터, 아이들에게는 배움의 공간 그 특수한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현명하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 관심이 많다. 교육청 행정 책임자, 현장 교사 대변자, 수요자인 학부모를 한자리에 모아 대립이 아닌 해법 모색 중심의 생산적인 토론을 끌어냈다. 중고등학교와 달리 초등학교에서 체험학습이 1/3 가까이 급감했다는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직관적으로 전달했다. 버스 타이어 마모도 확인, 운전기사 음주 측정 및 졸음 방지 등 교사에게 전가된 비전문적이고 과도한 지침 매뉴얼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하여 시청자들의 깊은 공감을 자아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정작 핵심인 학생들의 목소리가 공백으로 채워진 점이다. 학부모 패널이 자녀들의 의견을 대신 전달하긴 했으나, 소풍을 잃어버린 당사자인 초등학생들의 실제 인터뷰나 현장 보도를 선포 형태나 미니 리포트로 사전 삽입했다면 시청자의 정서적 공감대와 몰입도가 더욱 높아졌을 것이다. 교육 문제에 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주길 바란다.

- 유한별 위원 : -5월 19일 <빛나는 나의 도시>에서는 광주가 오월을 기억하는 방법 코너가 있었다. 5.18을 맞아 오월의 정신을 기억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모이는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줬다. 오월 어머니들의 주먹밥 나눔과 합창, 민주평화대행진, 민주야 밤과 전야제, 5.18 기념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광주시민들만의 추모와 기념행사를 통해 광주시민들이 오랜 아픔을 자부심으로 승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어린 아이들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체험행사 등을 통해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하는 성숙한 광주 시민의식이 부각한 훌륭한 코너였다. 앞으로도 5.18의 가치를 계승하는 현장을 소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조명해주길 바란다.
- 이경주 위원 : -행정통합 해외 기획 취재 계획 관련해 의견을 드리고자 한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재조정을 넘어 지역의 생존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차대한 과제다. 이러한 시점에서 광주MBC가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의 글로벌 행정통합 사례를 다루는 기획 방송을 준비하는 것은 지역민에게 거대 담론을 쉽게 전달하고 생산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기획 방송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청자위원으로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우선 방송에서 소개될 독일과 프랑스의 광역화 모델, 그리고 뉴질랜드의 효율성 중심 개편 사례를 우리 지역의 미래 신산업 생태계와 긴밀히 연결해 주시기를 바란다. 독일 베를린·브란덴부르크의 통합 시도나 프랑스의 레지옹 개편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뉴질랜드는 행정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에 무게를 두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의 차별점을 명확히 짚어주는 동시에, 이것이 현재 광주와 전남이 사활을 걸고 있는 AI, 디지털 콘텐츠, 모빌리티 등 미래 핵심 산업 생태계 구축에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해 준다면 방송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또한, 행정 주도의 하향식 제도 개편이 아닌 주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상향식 수용성에 주목해야 한다. 해외 행정통합 사례의 성패를 가른 가장 큰 요인은 결국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의와 참여였다. 통합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지역 간 패권 갈등이나 주민 소외 문제를 해외 선진국들이 어떠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극복했는지 심층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광주·전남 통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도민의 정서적 이질감을 완화하고, 통합 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기획 방송이 단순한 해외 정보 전달을 넘어 앞으로도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보도를 바란다. 이를 통해 미디어 본연의 사회적 메시지를 명확히 던져주기를 기대한다. 우리가 살펴볼 해외의 통합 사례들 역시 인구 감소와 메가시티 집중이라는 공동의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 광주MBC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이 초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 소멸을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강한 여론 형성을 이끄는 견인차 구실을 해주시길 바란다.
- 장은백 위원 : -오늘까지 광주문화방송 <뉴스데스크>를 살펴보면 선거 시기에 앞서 후보자들에 대한 공약 비교분석을 꾸준히 해나가며 선거구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 46주년을 맞이한 5.18 기념식과 그즈음에 발생한 스타벅스 혐오 마케팅에 관한 지역민의 여론을 자세히 소개

한 것도 지역 언론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 부분이다. 5월 18일 보도된 ‘지역 언론의 위기는 지역공동체의 위기’ 기사에서는 지역방송사 대표단이 정부 유보금으로 묶여있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 다시 지역방송 발전으로 돌아올 수 있는 선순환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점을 다루었다. 지역 언론의 발전을 위해 물적 토대도 물론 중요하나, 현재 광주문화방송 <뉴스데스크>를 오랫동안 지켜봐 온 지역민의 눈에는 다른 아쉬운 점들이 많다. 고참 기자들의 기사 퀄리티가 떨어져 볼 만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은 오래된 기억이 되어버렸다. 그 공백을 젊은 기자, 지역에서 올라온 기사로 메꾸고 있는 것도 확연하다. 내부 구성원들의 갈등과 무관하게 지역방송을 책임지고 있는 현직 기자들, 특히 후배들을 이끄는 자리에 있는 고참 기자들이 스스로 기자로서의 소명 의식을 제고하여 주기를 바란다.

○ 정인영 위원 : -<시사용광로>에서는 소풍이나 수학여행이 없어진 학교에 관해 방송했다. 이번 방송은 학교에서 소풍과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이 줄어드는 문제를 다루었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로서 평소에도 관심이 많았던 주제라 더 공감하며 보았다. 현장 체험학습을 단순히 노는 시간이나 추억 만들기로 보지 않고, 아이들의 학습권과 성장 과정 일부로 다룬 점이 좋았다. 친구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 규칙을 배우고, 서로 협력하며, 교실 밖에서 경험하는 활동은 학교생활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방송에서도 학부모, 교육청, 교사 입장을 함께 다루어 한쪽 주장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접근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안전 문제와 교사의 부담을 함께 짚은 점도 현실적이었다. 현장 체험학습이 필요하다는 말만 하기보다, 초등학생의 안전 문제, 교사의 행정 업무, 책임 부담까지 이야기한 것은 실제 학교 현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학교 안으로 찾아오는 체험학습이나 가까운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어 좋았다. 아쉬운 점은 학생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담겼으면 했다는 것이다.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학생들이다. 학생들이 소풍과 수학여행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학교 밖 체험과 학교 안 체험을 어떻게 다르게 느끼는지 들려주었다면 방송이 더 생생했을 것이다. 또한 교사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은 좋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조금 더 설명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 인력 지원, 행정 절차 간소화, 체험 장소의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함께 논의되면 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광주·전남의 역사·문화 공간도 학생들이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정희 위원 : -5월 7일에 방송된 <시사용광로 스페셜>을 보니까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지방 병원 부족 이야기가 주로 나왔다. 특히 시골 주민이 “응급실 한번 가려면 한참 걸린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억에 남았다. 실제로 지역에서 불편함이 크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군공항 문제도 단순히 찬성·반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안 주민들과 광주시민들 입장을 같이 보여주려고 하는 느낌이었다. 방송을 보고 나니까 “이런 게 진짜 지역 뉴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토론하는 사람들 분위기가 약간 한쪽 의견 쪽으로 기운 것 같다는 느낌도 조금 있었다.

-5월 14일 방송된 <다큐M>은 전남 어촌마을과 광주 양동시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조용하지만 마음에 남는 방송이었다. 빈집이 늘어난 어촌 풍경이 나오고 한 어르신인 “예전에는 사람 소리가 많았는데 지금은 너무 조용하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특히 기억났다. 또 양동시장 상인들이 손님 줄어서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모습도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방송을 보고 나니까 그냥 뉴스로 볼 때보다 지역 상황이 더 실감 났고, 괜히 마음이 먹먹해지는 느낌이 있었다. 주변 반응도 “우리 동네 이야기 같아서 공감됐다”라는 말이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분위기가 조금 무겁고 우울하게 느껴진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우리 지역의 다양한 명소에 관한 이야기를 찾아 더욱 관심을 가지고 다뤄주길 바란다.

○ 박양우 위원장 : -기타 의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 관련 내용이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 제18조 여론조사의 보도 제6항과 관련하여,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 서열화 또는 우열을 묘사하여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 방송을 위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라는 내용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의 공정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 특히 유의하여 방송에 임해 주길 바란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것으로 5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다. 모두 수고하셨다.

끝.